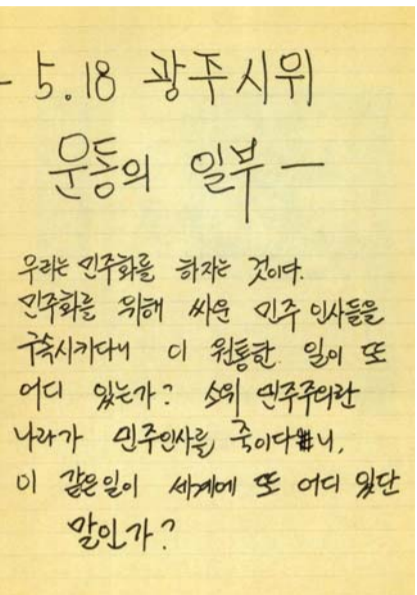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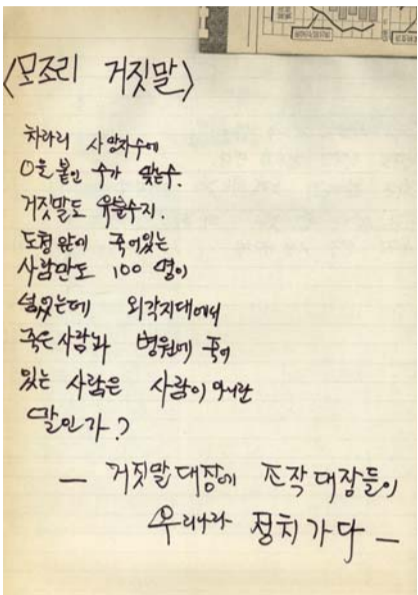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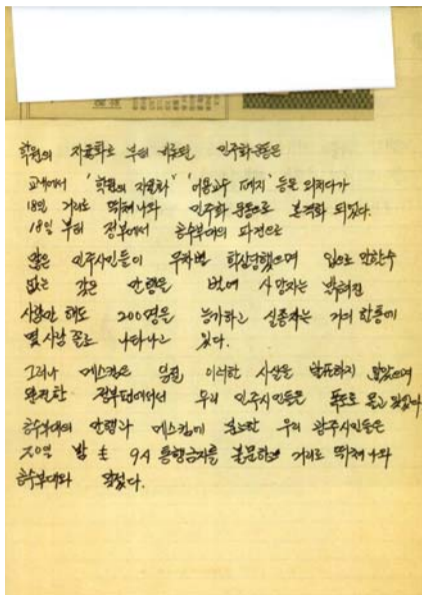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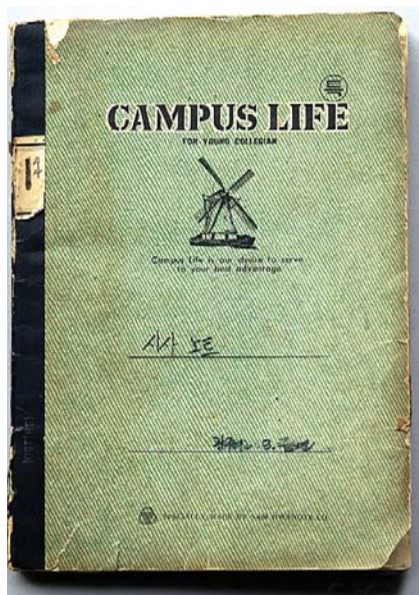


## “도청을 빠져 나와 살아남은 죄책감 ‘5·18 정당성’ 후대에 알리려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씨의 '5·18 여고생 일기'. 당시 광주여고 3학년이었던 주소연씨는 광주시민의 분노를 여고생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기록했다.

“1980년 5월 22일, 18일부터 정부에서 공수부대의 파견으로 많은 민주시민들이 무차별 학살 당했다... 그러나 매스컴은 일절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우리 민주시민들을 폭도로 몰고 있었다...”

“5월 23일, 왜 매스컴은 공수부대의 만행을 적지 않고 시민들의 잘못만 내세우는가? 이에 우리 시민들은 정부를 완전하게 믿지 못할 수밖에...”

“5월 26일, 도청에서 자고 있는데 오빠들이 와서 ‘계엄군이 오고 있다’며 깨웠다. 살고 싶은 사람은 피하라고 해 피신했다. 군인들은 도청을 점령했고 민주화를 부르짖던 모든 시위는 끝나버렸다.”

“5월 28일, 등 치고 배 만지는 정부가 밉다. 병주고 약주는 정부가 밉다...”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전시된 '5·18 여고생 일기'는 한국판 '안네의 일기'로 불린다. 5·18 당시 광주여고 3학년 주소연씨가 시민군 취사반으로 활동하며 쓴 이 일기는 신문 스크랩과 함께 신군부의 학살에 대한 광주시민의 억울함과 분노를 여고생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담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 일기는 5·18기록관을 방문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필수 관람코스다.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18 여고생 일기' 주소연씨 첫 인터뷰

“사망자 수 조작...도청앞·병원 시신은 사람 아닌 말인가”

광주시민의 억울함과 분노 여고생 시각으로 생생하게 담아

왜곡·망언 여전 ... 지금도 5월의 상처에 고통받고 있다

어제 '5·18 항쟁과 여성' 집담회 참석 39년만에 사회 털어놓

일기의 주인공 주소연씨가 39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주소연씨는 29일 전남대 5·18연구소가 주최한 주제 '5·18 항쟁과 여성' 집담회에 참여해 당시 상황과 현재의 5·18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소연씨는 집담회에 앞서 가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며칠씩 힘들어 그동안 5·18에 대해 이야기할 꺼내지 않았다”며 “최근 망언과 왜곡 등으로 5·18이 공격 받는 상황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이번 집담회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980년에 광주여고에 다녔고 집은 남광주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쟁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며 “5월 22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취

사반 모임을 하자 참여해 27일 새벽 도청을 빠져나오기 전까지 활동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도청을 빠져나와 집에 돌아왔을 때 혼자 살아왔다는 죄책감과 미안함, 성공하지 못한 시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며 “아무도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후대에 알리려야 된다는 생각에 신문을 스크랩해서 수정하면서 기록했다”고 일기 작성 배경을 밝혔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쌀과 음식을 모으는 때 기꺼이 내어준 광주시민들, 병원에서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길게 늘어선 헌혈 행렬, 안전하게 보호받던 상가와 은행들, 여고생 주소연씨가 본 5월 광주의 모습은 위협하지 않은 해방구이자 불의

에 항거해 일어난 민주항쟁이었다.

주소연씨는 여전히 5월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5·18 묘역은 가지 못했고, 정부와 언론 등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안고 살아오고 있다.

주소연씨는 “10여년 전 서울에서 주차유금을 할인 받기 위해 5·18유공자증을 냈을 때 ‘이게 무슨 유공자냐 빨갱이지’라고 폭언을 했던 나이 드신 분이 있었고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가 잘못됐다고 탄원하는 사람, 회고록을 쓰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다”며 “5·18 명예가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5·18 아픔을 수용하고 감싸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 받았다”며 “힘들겠지만 이제는 5·18을 극복하고 편안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5·18 연구소 관계자는 “5월 항쟁 당시 주체적으로 참여했던 여성들의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으로 주소연씨를 초청했다”며 “이번 집담회를 계기로 5·18연구의 최근 쟁점과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 현대차 공장 투자 금액 축소

7000억원에서 5745억원으로  
고용인원·생산능력 계획 유지  
광주은행 100억 투자 의향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 법인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첫 투자자로 광주은행이 29일 100억원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역 상공인들도 합작 법인 설립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하면서 향후 투자자 모집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완성차 공장 합작 법인의 투자 규모가 예초 7000억원 수준에서 5745억원으로 축소돼 기업들의 투자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광주시의 투자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 투자자 모집을 마무리한 뒤 합작 법인을 설립한 뒤 올 하반기에 완성차 공장 설립을 착공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29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광주형 일자리의 첫 사업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투자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유연성, 디지털화, 친환경 3가지 콘셉트를 이끄는 사업비를 5745억원으로 조정해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초 19만평의 공장 건설 부지 면적이 18만3000평

으로 축소되고, 공장 설비 비용도 줄어든다. 이는 앞으로 완성차 공장의 수익성, 지속가능성, 사업의 확장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전체 투자 사업비가 축소되면서 광주시의 투자금액은 예초 590억원에서 483억원으로 줄게 되며, 현대차의 투자금액도 530억원에서 437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다만, 광주시(21%)와 현대차(19%)의 지분율은 변화가 없다. 사업비 규모는 감소했지만, 기존에 협약한 고용 인원과 생산능력 10만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투자 전문가들은 기존에 공개된 고용인원과 생산능력(10만대), 지속 및 확장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투자 규모를 최적화해 법인이 조기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 사업의 성공에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주요 기업들은 안정적이고 탄탄한 사업 전망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광주은행이 광주시 100억원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 합작법인의 두 축인 광주시,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외부기관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투자다.

광주시 관계자는 “6월말까지 투자유치를 마무리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올 하반기 착공해 2021년 공장 완공 등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관일 기자 cki@kwangju.co.kr

## 한전공대 업무협약 ... “세계적 수준의 공대 설립”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대학 설립이 본격화된다.

전남도는 29일 도청 서재빌딩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김종갑 한전사장, 강인규 나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공대 설립 업무협약'을 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대 설립과 에너지 신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부지 제공, 재정 지원,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계획이 담겼다. 한전공대는 나주 빛가람동 부영CC 부지 일부(40만㎡)를 부영주택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아 조성되며, 나주시는 연구시설 부지(40만㎡)와 클러스터 부지(40만㎡) 부지를 매입해 한전에 제공키로 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또 대학발전기금 형태로 공대 개교 시점인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각각 100억원씩 2000억원을 지원

한다.

한전은 협약을 통해 전남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IT-에너지 영재학교 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전공대 설립을 통해 혁신도시가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산·학·연 클러스터의 성과가 전남 모든 시·군에 골고루 나눠지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